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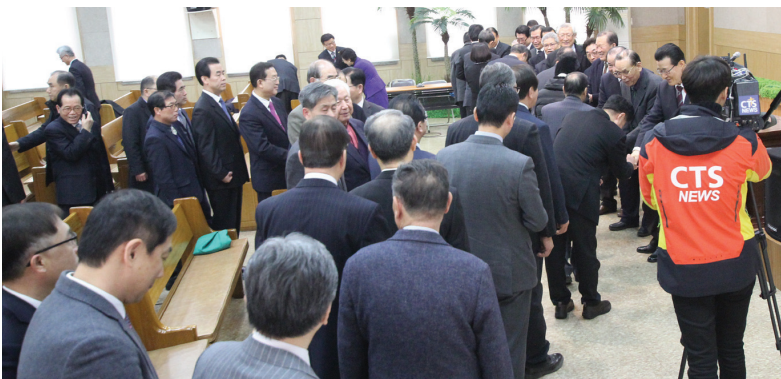
2018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덕담 주고받으며 사랑의 교제

교단 2018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 하례식이 지난 8일(월) 오전11시 총회회관 대성전에서 교단 정책위원 및 실행위원, 각 국장, 각 위원장, 각 기관장 각 지방회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무예배는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사회, 선교위원장 심용재 목사의 대표기도, 부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성경봉독,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심용재 목사는 새로운 한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때 바른 복음을 전파케 하시며 마지막 때 시대와 사회를 밝히는 역할을 감당케 해주실 것을 간구했다.

조용목 목사는 롬 12:2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감파해집을 면하도록 마음을 깨뜨리고,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게 되기를 당부했다.



계속해서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생안정을 위해', '교단발전과 개교회 부흥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교단 중경총회장 진동용 목사, 중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직전총회장 조남영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교단 총무 엄기성 목사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중경총회장 김상용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곧바로 총회장 김양인 목사 인도로 이어진 신년 하례식에서는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회원 서로를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선후배 동역자들 에게서로 뜨거운 박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제66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오전 후 오후 1시 제66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가 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최근 진행 중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 진행될 일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총회장 김양인 목사 주재로 진행된 실행위원회는 서기 차용식 목사의 회원점명, 개회선언, 전 회의록 낭독, 총무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엄기성 목사는 총무보고에서 2017년도 목대원 하반기 재결하기, 전국여교역자군 송년예배, 2017년도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졸업예배, 2017년도 예하청 사이버신학연구원 졸업예배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 재무 탁정진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윤병하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교단발전기금 납부 현황 보고,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전

출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명칭변경 보고, 전도사업명 청원 등 각종 결의사항 등이 처리되었다.

기타사항으로 2월 5일(월)과 6일(화) 실시되는 목사 고시 등의 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2018년도부터 실시되는 종교인과세에 대해 상세

하게 설명하고 총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안내하도록 하여서 불이익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중경총회장 최광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프로 소장
의
말씀은
시기대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복’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3)

성경에는 육신의 안락에 관련된 것들을 복의 요건으로 인정하면서 더 근본적인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복의 요소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구절들을 가지고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복의 요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3)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전제하에서 복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있어 성경구절들을 깨달은 마음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되고 신령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리시며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 14:13)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마음에 평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다가 죽는 사람,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며 칭찬과 상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셋째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 16:15) 하였습니다.

여기서 옷이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비성경적 신학 사상에 매료되거나

미혹되어 순전한 믿음을 내버리면 그의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넷째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계 19:9) 하였습니다.

여기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란 예수님을 믿어 구속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섯째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 20:6) 하였습니다.

부활에는 성도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이 첫째 사망에 속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을 한 후 최후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부활 곧 성도들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염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게 됩니다.

여섯째는, “그 두루마기를 떼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계 22:14) 하였습니다.

“그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로움과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인위적 인 방법으로도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절두 찰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진주 문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내에는 어느 해보다도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큰 사건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내적으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보수·진보의 갈등, 불공정에 대한 불만 표출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못하였고, 외적으로는 북핵에서 비롯된 한반도 정세의 긴장,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한일 위안부 문제,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 과세 문제, 동성애 반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빴습니다. 교회가 재만 사회의 이슈에 대하여 바른 가치관을 지키려다보니 마치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듯이 비춰져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소돔성이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 동안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보여준 행동은 대한민국을 위한 의로운 결단이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초창기에 교회가 가졌던 역동성과 참신성을 회복하여 이 민족을 깨우고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무기력해질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개신교는 이름과 같이 개혁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개혁을 멈추면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교황의 권력과 부가 세속 군왕을 능가한 때가 로마가톨릭이 가장 타락한 시기였음을 말해 줍니다. 권력과 부를 기렸으나 복음

의 능력을 상실하여 살았다하는 이름은 있었으나 죽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개혁을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결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사도들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전 4:20)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신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역 위에 주님의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으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양인 목사

포토뉴스

교단 제66차 총회 제9회 임원회가 지난 8일 실행위원회를 마치고 교단 총회장실에서 열려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건을 결의했다. 기타사항으로 부산신학교 학사를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로 이전, 이사장에 박종근 목사, 학장에 한명정 목사를 인준하고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임영철 목사) 도움요청의 건 등 주요회무를 처리했다.

경기지방회 순복음세움교회 임영철 목사님은 최근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는 지방회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회원교회와 회원, 구독자들에게 도움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어서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 당부와 아울러 마음을 같이 하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는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계좌번호 : 농협 302-1165-2350-21 임영철(임한나)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한기연, 시무식 겸 사랑의 한 끼 제공

1월 3일 서울역 노숙인 500명에게 점심 대접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1월 3일(수) 서울역 노숙인 급식센터인 신성교회(김원일 목사 시무) 해돋은마을에서 새해 첫 '사랑의 식사' 행사를 갖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한기연 2018년 시무식을 겸해 열린 사랑의 식사 행사는 새해를 맞아 영하의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이어 "한국교회에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실천함으로써 2018년에 우리 사회가 한층 따뜻하고 밝아지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사랑의 밥 퍼 행사에는 한기연 임직원과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 총무

협의회 임원 등 20여 명이 봉사에 참여했으며, 한기연은 예배에 참석한 노숙인 200여 명에게 방한용 기모 바지를 선물하고 50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다. 한기연은 또한 지난 제7회 총회시 들어온 축하 화환 대신 받은 쌀 300kg도 노숙인 급식에 사용도록 해돋은마을 대표 김원일 목사에게 전달했다.

CTS, 지진피해 복구에 힘 보탬 수 있어 감사

지진 직후 CTS, 7000mira클-포항 지진 피해 돕기 특집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2017년 11월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CTS는 포항 지진 직후 피해 현장에서 촬영, 제작한 7000mira클-포항 지진 피해 돕기 특집방송을 2부에 걸쳐 방송한 바 있다.

방송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4480여만 원의 성금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포항노회에 기탁한 것이다.

구호성금 전달식에서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CTS가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음에 감사드리다"며 "추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포항지역 지진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알리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포항노회 박석진 노회장(포항장성교회 담임목사)은 "귀한 성금을 포항 지역에 있는 교회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에게 형편을 유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CTS로부터 시작된 도움이 큰 힘이 돼서 모든 교회들이 빨리 회복되기도 하나니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당 복구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증경대표회장 간담회

원로지도자들의 뜻이 정체성 회복의 길잡이 될 것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중현 목사)는 지난해 12월 12일(화) 제1회 한장총 증경대표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중현 목사는 제1회 증경대표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한국장로교회의 원로 지도자들의 지혜와 뜻을 모으는 것이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의미가 있어 증경대표회장님들

을 모시기 되었다"고 말했다.

참석한 전 대표회장은 박기수 목사(6대), 김춘국 목사(18대), 엄신형 목사(24대), 김요섭 목사(26대), 이종윤 목사(27대), 윤희구 목사(29대), 권태진 목사(30대), 유만석 목사(31대), 황수원 목사(32) 등 9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장총 임원회에서는 유중현 목사(대표회장), 송태서 목사(상임회장)를 비롯한 12명이 배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기수 목사는 "증경대표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으며 한국장로교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한국에 장로교회를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 후손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종윤 목사는 "31절은 국가행사라기보다는 교회행사보아야 할 것이고 100주년 이 되는 2019년에 대한 기념행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유중현 목사는 "한장총을 앞선 선배들이 35년 동안 발전을 시켰는데 한국장로교회의 부흥과 관련하여 한장총도 미주지회 설립, 기업 문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관련된 토의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증경대표회장들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위해, 증경대표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장에는 직전회장인 채영남 목사, 총무에는 황수원 목사를 추대했다.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의 한끼 나눔 실천

생명나무숲교회, 서울역 노숙자에게

지역과 공동체를 섬기며 교회의 공공성 운동을 실천해오고 있는 생명나무숲교회(담임 장현일 목사)는 (사)해돋은마을과 함께 지난해 12월 27일(수) 오전 11시 서울역 신성교회(담임 김원일 목사) 노숙형제 600여 명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식사를 준비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노숙형제들에게 선했던 사마리아안으로서 따뜻한 점심식사를 정성껏 대접했다.

이날 시역 전에 "서울역 노숙형제와 함께 드리는 생명나무숲교회 사랑의 한끼"는 김예정 목사의 사회로 박희선 장로(해돋은마을 이사)의 대표기도, 김연미 선교사(생명나무숲교회)의 헌금기도, 조현주 집사(생명나무숲교회)가 성경봉독 순서와 각자연, 조서연 자원봉사 등 많은 성도들이 순서를 맡았다.

이날 장 목사는 누기복을 2장 8-14절 말



씀을 본문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구유로 오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회복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더욱더 진정성을 갖고 사랑과 평안을 나

누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했다. 창립 1주년을 맞은 생명나무숲교회는 (사)해돋은마을은 여러 방법을 통해 서울역 노숙형제들을 섬겨오고 있다.

교동협의회, 이웃사랑 나눔 송년예배

떡과 음료 등 정성껏 준비한 선물 전달

교동협의회(회장 정병두 목사, 총무 강종구 목사)는 지난해 12월 12일(화)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소재 새동산교회(담임 정병두 목사)에서 제6회 이웃사랑 나눔 송년예배 및 사랑나눔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백봉용 목사(빛나교회)의 사회로 박근우 목사(교자나무교회)의 기도, 교동협의회 회원의 특별찬양, 김정만 목사(효창김리교회)의 막 5:25-3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웃기'라는 제목의 설교, 이형로 목사(만리현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김정만 목사는 "혈투병으로 열두 해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 이웃들에 따돌림, 소외된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의 웃기'라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병을 고쳤다"라며 "예수님은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



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이웃사랑나눔 행사는 남기형 목사(예수촌교회)의 사회로 김기환(트럼펫나라)의 축하공연, 안현숙 효창동장의 내외빈 소개,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축사를 전하고, 정병두 목사(교동협의회 회장)가 사랑나눔으로 회원들이 모금한 금일봉과 지자체에서 헌물한 비누, 파스 등 여러 가지 선물을 참석한 이웃들

에게 일일이 선물을 증정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계속해 강종구 목사협의회 총무는 광고를 통해 2017년 송년감사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나눔이 풍성해 지도록 협력해주신 주민센터와 떡·음료를 준비해 주신 새동산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전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창립40주년 겨울연찬회

1월 8일부터 청주대학교에서

(사)한국교육자선교회는 지난 1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충북청주대학교에서 '제상을 변화시키는 기록물 유산' (벤진 2:9)이라는 주제로 동 선교회 창립40주년 겨울연찬회를 열고 기독교사료로, 브라이언박 목사 등 생령과 나눔의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

램들로 구성했다.

특히, 유정옥 사모의 노숙자 사역, 객상학 목사,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의 저자인 최원호 박사가 강연했다. 또한, 연찬회 기간 동안에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와 청소년 재자 캠프를 별도로 운영하기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캠프로 운영하였다.

(사)한국교육자선교회는 학원복음화에 소명을 받은 전국의 유·초·중·고·대학 교육자들이 모여서 1978년에 창립한 선교회이다. 2017년 3월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게 된다. 현재 15



개 지방회와 60여 개의 지역회가 있고 김형태 이사장(전 한남대 총장)과 김종화 중앙회장(서울 금곡여고 교장)을 중심으로 70여 명의 임원들이 앞장서 섬기고 있으며, 연찬회는 연 2회(여름, 겨울) 반향 기간 동안 개최하고 있다. (02-744-1330)

승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총동문회 총회

제16대 대표회장에 배진구 목사 선출

제16차 승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총동문회 정기총회가 지난해 12월 21일(목) 북수원 드마리스에서 열려 제16대 대표회장

배진구 목사를 선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배진구 목사의 사회로 이원우 목사의 기도, 지창자 목사의 특송, 신

덕수 목사의 설교, 김주선 목사의 광고, 원종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했다.

2부 총회는 김덕수 목사의 사회로 이찬규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회원점명 후 지난해 각종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받은 후 임원개선에 들어가 15대 공동회장이었던 배진구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지리성스러운 승실기독교동문상에 황영웅 목사, 송봉순 감사, 양용석 목사, 사정국 목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총동문회 총회는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의 내빈소개에 이어 애잔 및 기념회 시간을 갖고 동문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17 송년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12월 21일(목) 태종대 목장원 3층 오채담 한식 뷔페에서 2017년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는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운교회)의 기도로 시작하여, 회장 조병희 목사(기정순복음교회)가 한 해 동안 지방회를 위



해서 협력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해 준 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한 후,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가 지방회의 다사다난했던 행사들을 보고하며 올 한해 도 지방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돌린 후, 한명집 목사(은혜와 평화교회)의 식사기도 후 한 해를 결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2018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김성호 목사)는 지난 1월 2일(화) 오전 11시 순복음은혜교회에서 2018 신년하례회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한기봉 목사(장계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서세드로 목사(내선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홍광희 목사(순복음예전교회)의 성경봉독, 임원일동의 특송, 회장 김성호 목사(섬김의교회)의 뎀 33:2-3 말씀을 본문으로 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증경회장 김정구 목사(원안순복음교회)가, 총회와 지방회를 위해 김대성 목사(생명수교회)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증경회장 왕상엽 목사(순복음은혜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에서는 웃돌이를 하며 임원들이 준비한 선물로 푸짐한 잔치를 열었으며, 은혜교회에서 준비한 김 세트를 선물로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부활교회 입당감사 예배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욱 목사)는 지난해 12월 16일(토) 순복음부활교회(담임 임영진 목사) 입당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돌렸다.

충남지방회 증경회장으로 지방회를 섬기고 있는 순복음부활교회 담임 임영진 목사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용장길 11-4부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날 예배는 임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홍식 목사(꿈꾸는교회)의 기도, 정은호 목사(주님의영광교회, 글로리찬양선교회)의 색소폰 연주가 있는 후이동원 목사(옥동교회)가 뎀 4:7-11 말씀을 본문으로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어렵게 건축한 부활교회에서 기도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며, 선한 창조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열방기운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기도하며 축복했다.

이어서 총무 전홍식 목사(섬기는교회)의 헌금기도와 문해운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찬양, 임영진 목사의 입당기도, 이경진 집사의 건축경과보고 및 인사가 있었다.

이 집사는 건축경과보고를 통해 "다른 교회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 어려움이 있었지

만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전했다.

2부에서 증경회장 황수반 목사(순복음나눔교회), 회장 오승욱 목사(서북교회)의 권면과 증경회장 원문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 부회장 노우석 목사(평안교회)의 축사 후 증경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축도로 입당예배를 마쳤다.

송년기도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오승욱 목사)는 지난 12월 14일(목) 세종중앙순복음교회(담임 원문경 목사)에서 2017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송년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섬기는교회)의 사회로 서기 윤옥 목사(성신순

복음교회)의 기도와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시랑교회)의 성경봉독 부회장 노우석 목사(평안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노 목사는 겔 1:1-34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목회사명을 감당하

고 있는 우리도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기운에 사랑을 잘 감당해 나가는 동역자가 되기를' 당부하며 함께 기도했다. 이어 특별기도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증경회장 황수반 목사(순복음나눔교회)가,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증경회장 장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가, 교회와 지역을 위하여 증경회장 원문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가 주제별 기도를 인도한 후 제부 김영희 목사(장대교회)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오승욱 목사(천안시북교회)가 한 해 동안 헌신한 임원들과 지방회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1부 예배 후 지방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경품추첨을 통하여 골고루 나누어 갖고 세종중앙순복음교회(담임 원문경 목사)에서 준비한 풍성한 식사를 나누며 안부와 담소를 나누었다.

특히 내년에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정보교류시간이 있어 유익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의미 있는 모임을 가졌다.



물댄동산교회에서 교단가입감사예배 드려

부산동지방회

부산동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12월 21일(목)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시하구 다대2동에 위치한 물댄동산교회(담임 옥경



숙 목사)에서 교단가입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조경화 목사(순복음주님의교회)의 사회로 박영욱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물댄동산교회의 특송, 회장 홍현철 목사(은혜충만교회)의 뎀 2:15-22 말씀을 본문으로 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설교 후 통성기도를 하고 정영진 목사(순복음갈릴리교회)의 축사 및 권면, 안병선 목사(순복음창성교회)의 헌금기도, 최성진 목사(울산은혜와진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물댄동산교회에서 대접한 풍성한 식사를 하며 사랑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믿음 안에서 한 해 보내며 감사 찬송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박상규 목사)는 지난 12월 28일(목) 전주 티존뷔페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송년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심혜림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박상규 목사의 요산 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전인전강'이라는 제목의 설교, 증경회장 고현진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회원들은 예배 후 회장



박상규 목사의 대접으로 풍성한 점심을 먹고

선물을 나누는 등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

시무예배 갖고 빛과 소금이 될 것 다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1월 4일(목) 오전 11시 태진사랑교회(담임 정진학 목사)에서 2018년 시무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정진학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도병수 목사(동해인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와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리소망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고전 2:15 말씀을 본문으로 '신령한 목회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첫째,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자. 둘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회복하자. 셋째, 신령한 성도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넷째, 신령한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 다섯째, 신령한 목회자

는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써 우리의 역할을 하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기도 시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정책위원장님과 위원들을 위해, 총회장님과 임원들을 위해, 지방회 목회자들과 자녀들 건강을 위해, 동성애 합법화 저지와 차별금지법 무산을 위해,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종교청년 수련회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회계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안동성공교회)의 드린 예를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고, 장소를 옮겨 태진사랑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목사님과 사모님의 새해 인사와 즐거운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목장지로 향하였다.



신년하례예배 통해 쓰임 받는 삶 다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1월 4일(목) 오전 11시 열린교회(담임 이영순 목사)에서 2018년 신년하례예배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제부 김경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찬양인도와 총무 이봉기 목사(비터울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회장 유석구 목사(예바다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부회장 한상운 목사(순복음성령교회)의 성경봉독과 직전총회장 조남영 목사(기쁨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엡 5:16, 눅 8:1-3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을 선용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2018년을 우리에게 주셨



는데 이 한해를 허비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시간을 선용하고, 가진 것을 선용하고, 성령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해를 보내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순형 목사(이침빛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은혜로운 특송이 있었고 증경회장 이은승 목사(은혜와승리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 열린교회(담임 이영순 목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다.

월례회 모임 갖고 종교인과세 정보 교환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1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 선유생명교회(담임 박행남 목사)에서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대하 20:2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여호사밧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설교, 서기 육준수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한승수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회장 탁정신 목사의 진행으로 서기 육준수 목사의 회원점명, 오세준 목사의 총무 보고와 회계보고, 이경진 목사의 제부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3부 안건 토의 시간에는 교회 종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끝으로 강인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선유생명교회에서 대접한 점심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 생명의 말씀 ■



심재덕 목사

· 인천지방회 중경회장
· 주안복원교회

새해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지난 1년을 마음에서 씻어 버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1년을 바라볼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것입니다. 새해를바라보는 우리 마음의태도를 확고하게 잡아드립니다.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 가치와 보람, 허무와 불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 마음은 마치 건물 시공의 기초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잘못 세우면 건축물이 잘못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

롬 8:5~8

우리는 이 새해에 기초를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뜻에 따라 기초를 잘세울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 전 과정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완성된 계획을 우리가 땅에 살면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전 2:9)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아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으며, 금년 한 해 동안의 일도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없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2.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살아야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인간적이고 세속적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세동안 일하고 이례째는 당신을 섬기며 쉬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해에 경건하고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 옛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이례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

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서 우리는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인줄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고전 6:19-20)고 하셨습니다.

3.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

우리 몸에는 영적자아와 육적자아가 함께 있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영이 이끄는 ‘나’는 영적자아가 되고 혼과 육이 이끄는 ‘나’는 육적자아가 됩니다.

성경 롬 8:5-8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과 육이 이끄는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말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에 우리는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과 삶에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겠고, 육신을 지령하려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을 위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영은 지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함으로 영적 미숙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온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깨어서 한 해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송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

특히 교육방송은 청소년 세대가 가장 많이 시청하는 방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20대에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동성애를 미화하는 방송을 내 보내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방송은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작 교육방송이 교육을 망치려고 하는가?

론을형성하려는 음모가 있기때문 아닌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일맥상통하기때문에 의심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정부와 무슨 약속을 했기에 학부와 국민을 개 무사하며 한술 더떠 다음회는 남성혐오, 낙태, 성해방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을 방영한다니 이쯤 되면 EBS는 막가지는 거고음란, 퇴폐방송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이런 저질 교육방송에 내 자식들이 속아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두고 볼수 없어 ‘까칠남녀’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정혜림사장과 최혜경 본부장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방송 말미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나도 용기내서 커밍 아웃하고 싶다”는 멘트가 이렇게 담하고 싶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에이즈 환자를 커밍 아웃이나 좀하쇼!”

론을형성하려는 음모가 있기때문 아닌가?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일맥상통하기때문에 의심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정부와 무슨 약속을 했기에 학부와 국민을 개 무사하며 한술 더떠 다음회는 남성혐오, 낙태, 성해방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을 방영한다니 이쯤 되면 EBS는 막가지는 거고음란, 퇴폐방송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이런 저질 교육방송에 내 자식들이 속아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두고 볼수 없어 ‘까칠남녀’ 방송중단을 요구하며 정혜림사장과 최혜경 본부장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방송 말미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나도 용기내서 커밍 아웃하고 싶다”는 멘트가 이렇게 담하고 싶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다. 에이즈 환자를 커밍 아웃이나 좀하쇼!”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EBS(교육방송)는 교육방송이 맞는가?

EBS가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과 새해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까칠 남녀” 2부작을 내 보내기로 하여,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이 방송에는 전 서울대총학생회장을 지낸 레즈비언 김 모씨,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을 지낸 강 모씨, 그리고 바이섹슈얼(남/녀 양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의 은 모씨, 그리고 트랜스젠더 출신의 변호사 박

모씨가 출연한다. 이는 공영방송이며, 교육방송으로서의 품위와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본다. 더군다나 EBS는 국민들의 시청료로 운영하는 방송이다. 이 방송은 어린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교육, 직

업교육 등 어린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반교육적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방송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교육을 망치는 방

교육방송 EBS의 위험한 성인식 ‘까칠남녀’ 방송 강행을 규탄한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의 성명서

우리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들이 간판을 믿고 보는 EBS가 그 어느 방송사보다 퇴폐 방송을 강행한 것에 학부모들은 분노를 금치 못해 연발연시를 매서운 칼바람 앞에 서있다. 피를 토하며 방송중단 요청했으나 EBS는 비웃기라도 하듯 방송을 강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내용은 방송관계자 출연진들이 얼마나 무지, 무식하며 비정상적인 대변에 알수 있다.

1월1일 방송은 첫번째, 유전자 중 X Xo XxyXyyXxx...등이 있다. 자기 친구 중에도 있다. 다양한 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제점이다 유식한 척하려 유전자 얘기를 했지만 이 유전자가 동성애 유전자란 증거가 있는가? 여러 개 유전자가 있다고 동성애와 연관 짓는 지력은 무지한건가 무식해서 용감한건가 아무리 유전인 진실이 되는 세상에 산다고 어떻게 막무가내식 방송이 EBS 수준인지 학부모는 분노한다.

두번째 성중립 화장실이 필요하다.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비뇨계통의 병이 생긴다는 감성팔이내용의 문제점이다.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을 갈 수 없어 병이 생긴다는 건 말하면서 동성애로 항분필요한 파고에 따른 예로 항분성교로 인한 고통, 질

병, 에이즈 얘기는 왜 말하지않는가!

성중립 화장실을 양성을 제외한 모든 성이 공통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성소수자들이 여러 성에 노출되는 모순에 빠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가.

세번째, 24개국의 동성결혼합법화 영상으로 세계적인 흐름인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의 문제점이다. 200개가 넘는 세계국가에서 24개국이 대세라 말할 수 있는가? 세계가 공인화 되어가면 그것도 따라 하자 할 방송국 아닌가!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죄파들이 일만 열만 ‘지우’, ‘주체’를 외치면서 유독 동성애는 서구문화라며 열광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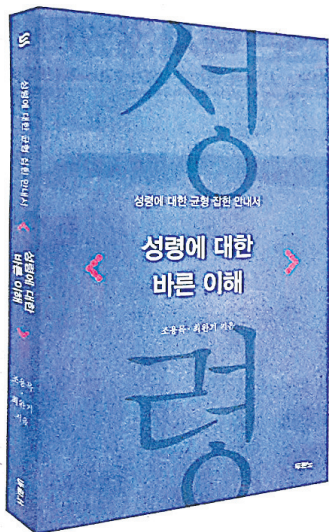
무궁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인 우리나라가 일제강점 동성애를 합법

화한 서구나라들이 겪는 폐해를 보면서라도 그 길을 따라 간다면 나라를 있어도 정신은 속국으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미래인 아이들을 서구문화에 환장하는 식민정신으로 물들이는게 EBS의 교육목표인가?

이와에도 출연진 면면은 동성애자, 매일 지우한다 자랑하는 지우도구 판매상, 트랜스젠더, 양성애자로 아이를 보는 교육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구성원이다.

이런 변태적인 성우자들을 소수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비판없이 포장하는 EBS 사장 정혜림과 최혜경 본부장은 학부모 우려의 외침을 외면하고 방송을 강행한 것이 혹 처벌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루려는 좌파정부 지지 하에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여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우월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자 조용목 목사

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동정

황교안 전 총리 추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5일(금)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약 1천명의 원로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제5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행사에서 추사를 전했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엔 중추적 역할을 기독교가 했다고 보며 그 역할을 70~80대가 되신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 컸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림택권 원장 목회자발씀세미나



성경적성경연구원(원장 림택권 목사, 이사장 임우성 목사, 이하 SSD)은 지난 12월 28일(목) 서울 압구정동 사무실에서 송년 감사 모임을 갖고, 2017년 한 해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원장 림택권 목사는 “지난 한 해는 하나님의 축복된 한 해였다”고 회고했다.

포항시기교연 신년모임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조근식 목사)는 지난 1월 3일(수) 오전 7시 포항동부교회에서 지역기관단체장과 교회지도자를 초청해 ‘나라와 지역을 위한 기도회 및 신년교례회’를 갖고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회장 조목사는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새해가 될 것”을 축원하였다.

정재영 시인, 국제PEN문학상



전 한국기독교시인협회 회장 정재영 장로(서울원남교회)는 지난 12월 22일(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국제PEN한국본부 ‘2017 PEN문학상 시상식’에서 시집 ‘소리의 벽’으로 시 부문 PEN문학상(본상)을 받았다. 전복 진안 출신인 정재영 시인은 ‘흔적 지우기’ ‘땅에 뜬 달’ 등 15권의 시집을 냈다.

포커스 / 성경적 경제부흥 16

최정식 목사 // 순복음불민교회 담임, 목회학 박사, 세계교회부흥선교회 대표회장, 몽골 안디옥성경신학대학 이사장, 복경신학교 이사 및 교수, 기독교타임스 편집위원, 성경적 경제부흥 강사



성경적 경제부흥 십일조(十一條)의 법칙(1)

성경적 경제부흥은 원리 중에 심고거두는 법칙에서 십일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농부가 풍년을 기대하며 씨앗을 심듯이 내가 받을 축복의 씨앗 종자를 먼저 심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명령이고, 그것은 바로 ‘씨앗을 심고 거두는 법칙’인 십일조 법칙이다. 십일조는 모든 소득의 십분의 일을 의미하고,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은 소득의 10개중에 하나를 씨앗으로 다시 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내가 받을 재정적인 축복의 씨앗 종자를 심는 것이고, 이 씨앗이 재물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는 경제부흥의 원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네는 미땅히 매매에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신 14:22) “...그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법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 14:2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와 가둬서 차고 네 짐 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잠 3:9,10)

성경은 십일조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모든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레 27:30) 그러므로 십일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일조는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 약속이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온전한 것으로 드러야 한다. “민간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

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 하나 보라...”(렘3:10)

하나님은 ‘십일조’와 ‘선약과’ ‘인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셨다. 이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기억하라는 뜻이다. 즉 모든 수입과 소득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씨눈이 붙어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몫이 다름을 구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과 다시 심을 씨앗을 함께 주셨기 때문이다.

고후 9: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사 55:10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창 47:23,24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오분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시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러므로 생평과는 먹어도 되는 것이지만, 선약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즉, 씨앗을 먹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십일조의 정신을 말씀하셨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23)

그러므로 내가 십일조를 하는 것은 내가 재정의 축

복을 받기위해서 온전한 씨앗을 풍성하게 심는 것이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고후 9:6)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의 노동을 통해 심고 거둠으로 계속적으로 재생산되어 이 땅에 충만하여 장구한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헌금이나 헌물은 어떤 수확을 거둔 후 그것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거나 소유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지만, 축복의 씨앗인 십일조는 내가 받은 것에서 심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항상 씨를 먼저 심듯이 받고 싶은 것을 받고 싶은 만큼 준해서 씨앗종자를 먼저 심고 거두는 것이다. 받은 것에서가 아니라 받기 전에 심는 것이다.

성경에서 축복의 약속은 먼저 씨앗을 심으라고 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짐은 심어야 물짐을 거둔다. 씨앗은 감아서 심는 것이 아니고 수확을 기대하고 심는 것이다. 자선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도 복 받는 일이지만, 십일조와 헌물은 가장 첫째 되는 약속 있는 축복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찬을 때는 본 교회에 즉, 자기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 십일조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개척교회나 구제사업 등 이런 저런 일을 도와주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받을 축복의 씨앗의 분량을 줄이는 요인이 됨으로 나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믿음으로 십일조와 헌물을 심는 성도들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변창하는 경제부흥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파월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입장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성명서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절대 반대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에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된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정 및 모니터링’, ‘성향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의식 확산’ 등의 핵심 사업의 성평등 기반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성평등 기반의 핵심 사업은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정면 배치되므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발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청원을 위한 20만 명 서명에 돌입한다.

이전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11월 16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 비전과 목표, 추진체계 등은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수정되었고, 특히 학교 교육과 시민 교육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수정한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다른 많은 핵심 사업에는 여전히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 계획은 양성평등의 정의와 성평등의 정의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여 기술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이 같기에 혼용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기존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은 기본계획을 반대하며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평등이 양성평등과는 다르게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여성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 여성단체는 대통령 선거에서 몇몇 대선 후보에게 성평등 공약을 받아내었고, 헌법개정에서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 계획이 실제로 적용될 때에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많은 핵심 사업에 남아있는 ‘성평등’이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핵심 사업에 있는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로서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가 동성애 옹호 교육이 되고, ‘학교 성교육 개선 검토’가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고, ‘성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젠더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은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는 대통령 신하의 ‘성평등 위원회’를 만드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걸으려는 양성평등으로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이 있는 많은 계획들이 문구만 모호하게 바

꾸고 그대로 추진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말과도 일치한다. 결국 국민의 눈을 속이고 여성가족부의 목표대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의 2018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평등 문화확산’ 명목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명칭을 ‘양성평등 문화확산’으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또다시 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사업에서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며, 대중매체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이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대중매체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확산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지만, 유독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의식 개선 등의 핵심 사업분야에서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집중된 것은, 양성평등 기반의 현행 헌법과 법률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실생활과 문화 속에서 성평등의식을 확산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공청회에서도 편향된 토론자들로 초청하여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 철저적 정당성마저 상실하였다. 또 여성가족부는 편향된 인사들로 ‘성평등 위원회 출범 준비 TF’를 구성하여 향후 성평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사업추진에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혐의로 처벌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되도록 청원, 일인시위, 집회,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발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청원을 위한 20만 명 서명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기본계획의 실제 적용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부추길 경우에는 전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부정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12월 21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참여단체 일동)

신년특집대담 CTS 스페셜 ‘한국교회를論하다’

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예장통합 최기학 총회장,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 출연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진중한 성찰을 통해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대표 프로그램 <CTS스페셜 한국교회를論하다>(이하 ‘한국교회를論하다’)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은 한국교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한다. 1부 1월 5일, 2부 1월 12일 각각 오전 10시 10분에 방송되는 2부작 신년특집대담 <CTS 공동대표이사에게 듣다> 편을 통해서다.

임용택 목사(안양감리교회)의 사회로 CTS공동대표이사인 전명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최기학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전계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가 출연해 △2018년, 한국교회에 필요한 정신과 변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교단별 활동과 과제들 △종교인 과세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이단과 이슬람,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다음세

대에 대한 교육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 등 한국교회 구체적 현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을 모색했다.

1부 “2018년 새해, 한국교회에 필요한 정신과 변화 방안은...”

1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송된 1부에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에 필요한 정신과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먼저 최기학牧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전경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고, 전명구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8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8년도 목사고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2. 5(월)~6(화) 오전 10시

■ 장소 :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장 목사 김양인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엄기설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한 명점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김양인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교단 총회 장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교수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em@naver.com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aman@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적대로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김상웅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ASSEMBLIES OF GOD



PARTY FIESTA

파티 피에스타 뷔페



피에스타 뷔페에서는 2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에스타 뷔페에서는 돌잔치전문, 칠순·회갑, 각종행사 작은 결혼식

❶ 출장뷔페 ❶

(교회 예식 피로연, 개업식, 체육대회)

❷ 편리한 교통 !

다양한 최고급 음식 !

7호선 뚝섬 유원지역 4번출구 앞 ❷❸

02)461-3300, 010-5327-7660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영합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 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경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 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민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알려드립니다

교단 부신지방회 중경회장 박용호 목사입니다. 지난해 목회자세미나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청정자연의 품은 정말 좋은 환경의 산청한방가족호텔에 매료되어 사외이사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각종 교회 행사와 세미나, 회의, 발표회 등 귀한 행사에 좋은 환경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코자 합니다.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 사외이사 박용호 목사 010-4873-0448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종교인과세 ‘과세·비과세’ ‘정관·의결 기구’ 구분 핵심

I. 종교인소득 과세의 내용

1. 종교인소득 과세의 개요

1-1. 개관

국회는 2015.12.2 종교인소득 과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통과시켰고, 2017.12.26 시행령 개정안과 제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종교인소득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소득 :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 납부방법 : 종교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 세표준신고하는 납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신고 선택 :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종교인이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 질문조사권 : 세무공무원의 질문·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시기 :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1-2. 종교인소득 과세의 특징

종교인소득 과세는 이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중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하는 법으로서 소득의 유형을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여기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이 이렇게 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각 소득에 따라서 비과세항목이나 필요경비의 산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원래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의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개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사업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킨 것은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 종교인들이 근로자로 취급되는 데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고 또 근로소득 보다 필요경비 등을 많이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근로소득 과세를 비교해보면, 종교인소득은 ①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세액 면에서 유리하고, ② 근로소득신고와 종교인소득신고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③ 세무신고 및 납세방법에 있어서도 원천징수와 개인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종교인소득의 구분

2-1. 과세대상 소득

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소득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이다.

(1) 종교인

종교인이라고 함은 종교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248)’를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목회자로서의 목사나 전도사, 그 이외의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강도사가 있다.

목사(24811)는 “기독교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에는 담임목사, 원로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교목, 원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목사의 자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 종교단체(교단)에 맡겨져 있고 이를 국가의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한편 전도사(24882)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율동·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교회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리직사, 기사 등은 종교인이 아니므로 이들은 종교인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과세 대상 종교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표 4> 과세 대상 종교인 범위 참조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므로 굳이 근로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종교인소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 대해서는 <표 5> 과세와 비과세 소득 대비 참조

(1) 학자금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등은 비과세 소득이다. 가령 교회가 소속 목회자에게 국내의를 막론하고 신학교 M Div. 과정 또는 신학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이 없는 학자금의 지원, 가령 경영학석사(MBA)나 로스를 학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나이가 최고경영자과정(AMP)과 같이 정규 교육과정인 아닌 교육비의 지원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하므로 본인이 아닌 사모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도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2) 식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얼마가 되든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이고 그 이상의 지원은 과세 소득이다.

■ 실비변상적 지급액

■ 출장비, 여비 등 : 실비변상적 지급액이란 출장비, 여비와 같이 실제 사용한 액수를 정산해서 소속 종교단체가 변상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여비, 출장비 등은 목회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며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의 여비 등을 교회가 지원하면 과세소득이 된다.

■ 차량유지비 : 교회소유의 차량을 목회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목회자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단체의 종교관련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소득이다.

■ 종교활동비 :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즉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통장에 공적으로 관리 사용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비과세 소득이 된다.

(4) 보육비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다.

(6) 사택사용이익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하여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사용이익은 비과세이다.

2-3. 필요경비

종교인 소득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는데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공제한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령 87조). 근로소득세와 종교인 소득세가 차이가 나는 것은 종교인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 원 이하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600만 원+(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 원 초과 3,200만 원+(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4. 징수세율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징수세율을 곱하면 징수세액이 결정된다. 징수세율은 월 급여 형태와 연봉 기준이 각각 다른데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고 연봉 기준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6~8%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5. 소득신고 선택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기존에 근로소득으로 자진신고 하던 종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종교인소득과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등은 종교인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과세 표준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르면 된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는 <표 2>와 <표 3>을 참조하면 된다. 이를 보면 4인 가족 기준 연 3천만 원 정도까지는 큰 차이는 없고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인 소득세가 유리하다. 이는 종교인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근로소득보다 많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청빙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 신고를 해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되므로 굳이 근로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종교인소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소득신고 및 납세

종교 관련 종사자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가 사례비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회행정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중대형교회에서는 대부분 원천징수 방법을 택하겠지만 1인 목회자 교회나 소형교회에서는 어느 방법이든 큰 차이가 없다.

3-1.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 뜻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교회)가 사례비 등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공제한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 번잡함을 피할 수 있고 세무당국에서도 징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는 대부분 원천징수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법 127조 7). 원로목사나 퇴직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회는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듬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한 종합신고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세액산정

원천징수 세액 산정 방법은 월급여와 연봉 기준이 다르다. 이를 신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월급여: 원천징수세액=[(매월보 소득×12)-필요경비]×20%×1/12

● 연봉: 원천징수세액=〔연간소득-필요경비-기본공제-추가공제×기본세율]-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1/12

이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산정이 매우 복잡하므로 과세당국에서는 종교인의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르는 상세한 간이세액기준표(<표 1>)를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다. 이 기준표에 따라서 세액을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표는 표준세액 기준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할 수 있다.

(3) 월별원천징수와 연별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매월 하는 것이 의무이다. 월별 원천징수의 경우 신고납부는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그러나 소규모 기관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고용인원의 규모에 상관없이 반기별 특례를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속 목회자의 수자에 상관없이 반기별 원천징수의 특례가 적용되므로 6개월씩 모아 7월과 1월에 연 2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4) 연말정산

소득세 원천징수는 소득을 추정해서 미리 하는 징수이므로 연말에 실제 소득을 정산해서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받고 적게 낸 분에 대해서는 납부하는 제도이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교회 등 종교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또는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와의 소속 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한다(법 14조의 3, 령 202조의 4).

● 납부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세액공제-기납

부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기본

세율

● 종합소득 과세표준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필요경비-종합소득공제

3-2.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법 70조)를 해야 한다(법 155조의 6후단). 즉 목회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교회)가 원천징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소득세신고를 하고 납부할 것인가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교인과세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예외를 두어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법 155조의 6). 종교인을 예우하고 강제로 세금을 걷는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함인 아닌가 한다.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교인이 그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끝이 나지만 다른 종교단체로부터의 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개인적으로 하여야 한다.

3-3.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종교단체)는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다음해 3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깨울 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최초 2년간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일종의 시범시행과 같은 성격이다.

지급명세서에는 그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이외에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목회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에서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무관하므로 지급명세서에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세무조사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제출을 명할 수 있다. 종래 종교계의 자진납세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 과세의 차이는 세무조사의 유무에 있다. 즉 법에 의한 과세는 제대로 세금을 내었는지를 검증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가 그 검증의 방법이다.

4-1. 질문조사의 대상

세무조사는 교회(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등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지급명세서, 종교인사례비 통장, 목회자소득에 관한 공동의 회결서, 정관규정 등이 대상이 된다. 조사대상자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등이다. 조사대상자에게는 납세의무자인 종교인(목회자)뿐 아니라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징수의무자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종교 단체(교회)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므로 질문 조사 대상이다.

종교인소득과세는 종교과세나 종교활동과세가 아니므로 목회자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 교회 회계장부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4-2. 종교활동비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외에 종교활동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기록 관리한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를 사례비와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경우, 가령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여 세무조사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사)한국교회법학회가 제공하는 종교인과세 매뉴얼 가운데 주요부분을 게재했습니다. 전체 매뉴얼이 필요하신 분은 목양신문 홈페이지 또는 (사)한국교회법학회(www.churchnlaw.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5회 한국교회원로목회자의 날 축하예배

평생을 헌신한 원로목회자들 위로, 국가 위해 기도 당부



제5회 한국교회원로목회자의 날 축하예배 및 원로목회자 대상 수여식이 지난 1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세검정 AW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원로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어수선한 나라의 정세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의 핵 위협이 허사가 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2018 자랑스러운 원로목회자 3명에게 원로목회자 대상을 수여하고 정성으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과 뜻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한국기독교교회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 김진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한국기독교교회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하고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교훈을 인용하며 원로목회자를 잇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기독교교회원로목사회 대표회장 조석규 목사의 대표기도, 한국기부재단 부부장 이상철 장로의 성경봉독, 기장 원로목사회 합주단(단장 김진호 목사)의 특별연주, 소망교회 원로 박찬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롬 13:11-14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적 신앙인의 역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평생 복음전

파를 위해 헌신한 원로목회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부흥성장을 위해', '국내 1만 2천여 명의 원로목회자들을 위해' 이상형 사관, 박전일 목사, 임재환 목사가 각각 주례할 기도를 인도했다.

한국기독교교회원로목사회 명예회장 이상모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 임원순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임원순 목사는 분세광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곧바로 자랑스러운 2018 원로목회자대상 수상자 3명 목회자대상에 이규호 목사, 국내선교대상에 최태권 감독, 농어촌선교대상에 유연왕 목사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2부 순서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원로목회자재단 총재 한은수 감독의 환영사, 정근모 장로, 황교안 전 총리의 축하메시지가 있었으며 텃인식 목사와 지덕 목사, 김동권 목사, 이윤규 목사의 격려사 한기종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연세대연한신학대학원장 유영권 목사의 축사, 평생목회 편집인 이준영 목사의 원로목사님께 올리는 편지 낭독, 임원순 목사는 엘리베이터오닉스 백영실 권사와 제이제피 전근포 안수집사에게 후원기업 인증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감리교신학연구원 원장 박진섭 목사의 광고, 한국기독교교회지자협의회 대표회장 신신목 목사의 축도로 원로목회자의 날 축하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신본주의, 말씀중심의 신앙회복 다짐

한총연 신년하례...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주님 원하시는 길 찾아 올바른 길 가야”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이하 한총연,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2018년 신년하례예배가 지난 1월 8일(월) 서울 강서구 에어포트 호텔에서 열려 국가와 민족 및 한국교회와 한총연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신본주의, 보수주의, 말씀중심주의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한총연 회원 및 교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예배는 총무 고광원 목사의 사회, 퓨리탄 장로회총회 총회장 서영웅 목사의 대표기도,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의 설교, 예장원 상임회장 이강익 목사와 보수총연회장 류신철 목사의 특별기도, 한총연 상임고문 남성운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새 일을 시작 하리라”라는 제목의 설교와 신년사를 통해 “한총연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전제하고 “2018년 한총연은 철저히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



심을 갖고 그에 따른 올바른 길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호 목사는 또 “한총연 동역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신본주의, 보수주의, 말씀중심의 초대교회신앙 회복을 위해 앞장서며 힘

있게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총연 개혁위원회는 탈북자 제1호 박사인 이예란 박사(자유통일문화원장, 하나 여성회 대표, 경인대 교수, 국민대통합 홍보대사)를 초청, 특별 세미나(개혁신포지움)를 가졌다.

구세군 통해 따뜻한 나눔 실천, 2억6천만원 상당 물품 기부

자연을 노래하는 피부 라벨영(대표 김하영)이 구세군 희망나눔미(대표 박광덕)에 약 2억6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라벨영은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자선바자회, 불우이웃돕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소외된 이웃에 도움이 손길을 건네고 있다. 이번에는 쇼킹베 이비올인원라인, 쇼킹미스트 플라워워터(에칭_꽃물 미스트), 뽕구드림, 쇼킹클렌징 등 약 10개의 제품을 구세군 희망나눔미에 기부했으며 해당 제품을 매장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구세군 희망나눔미는 기업 및 개인이 기증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과 알

콜, 약물 중독인들에게 재활 및 자활 치료, 청소년 장학금지원 등 구세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구세군 희망나눔미 측은 “구세군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 이패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라벨영 관계자는 “좋은 마음으로 물품을 기부했는데 제품 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생명 다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자

저는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목사님(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을 모시고 봉사하는 전도부장 천병길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뵈는 것은 2014년 10월경으로 청주 아름다운교회에서 전도 전도세미나가 열렸을 때에 부안에서 올라가 세미나에 참석하면서였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품고 있었고 그동안 많은 전도 현장에서 사명으로 전도하고자 했지만 실상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을 통해 가족세트전도법을 접하게 되었고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트전도법에 강조하는 전도의 성공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신속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까지 제 145기 가족세트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저 또한 2016년 4월 부활절부터 평내순복음교회에 출석하면서 박 목사님을 모시고 전국 개척교회를 비롯하여 온 교회를 방문하여 가족세트전도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는데 박 목사님의 이러한 전도 방법은 세트전도 아카데미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장실습을 위주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전도훈련을 하는데 전도방법에는 4가지 주요 특성과 특색이 있습니다.

세트 전도는 첫째, 신속한 ‘관계전도’ 이고 둘째,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전도’ 셋째, 전도 현장 고백이 있는 ‘생명전도’ 이며 마지막으로 특색은 물거피 퇴수 등이 무런 물품 없이 순수하게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의 전도는 3분 안에 결정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속전속결의 전격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함축성 있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따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장기도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현장의 활용은 제가 주로 하게 되는데 활용을 하면서도 항상 놀라는 사실은 박 목사님의 영접기도 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양같이 온순해지고 영접기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 2:10) 말씀과 연결됩니다.

즉 가족 세트 아카데미의 특징은 짧은 시간 최대의 효율을 나타내는 신속한 ‘관계전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전도’ 현장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생사를 마감할 정도의 날이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병원에 실려 가고 심장 마사지를 해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새벽에 환상으로 하늘에서 누워 있는 침상에서 세트로 전도교제 123페이지 영접기도문이 두루마리 천으로 내게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세요 구원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 생명이 박 목사님과 함께 동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평내순복음교회 천병길 안수집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체험담

안산거주 김OO 성도의 어머니(84세)가 이 제품으로 양치질과 가글을 한지 보름만에 **목치름** 비뚤 잇몸질환이 개선되고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구취가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제거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히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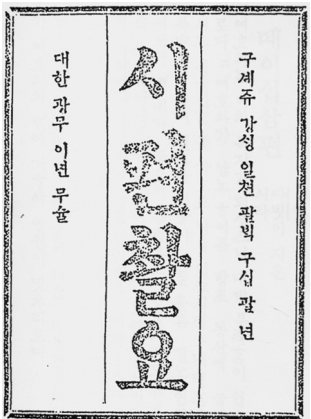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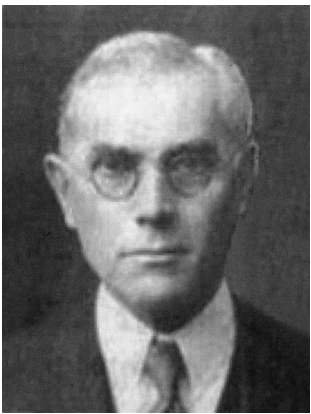
포커스

박준서 교수 //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

구약성경 최초의 한글 번역자 알렉산더 피터스 선교사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피터스 목사를 기리기 위해 기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는 구약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알버트 피터스 목사(한국명 피득)는 1896년 한국에 와서 3년 간 한글말을 배운 후 1898년 시편의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시편촬요」를 출



간했는데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번역입니다.”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 박준서 교수(연세대 전 부총장)의 말이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준 분들은 우리들이 영원히 감사해야 할 민족의 은인들이다. 신약성경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로스 목사가 1880년대 중국 상하이에서 최초로 신약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그의 공적을 기려 「로스 기념관」을 건립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약성경의 경우는 어떤가? 누가 언제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는지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의 업적을 감사하는 기념사업은 고사하고 말이다.

“피터스는 1871년 러시아의 정동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워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과 시편을 낭송하며 성장했습니다. 그가 지냈던 19세기말, 제정 러시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극심해 유대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를 떠나기로 하고 24세 청년 때 러시아를 떠나 일본 나가사키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그에게 세례를 준 미국 선교사의 이름을 따라 피터스라고 개명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피터스는 미국 성서공회와 파송한 권서(勸書, Colporteur)의 자격으로 한국으로 와서 최초로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적인 인물이지요” 박준서 교수의 피터스 목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한편, 피터스가 1896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땅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없었다. 당시 한국에는 구약성경을 번역할 인물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히브리어는 물론 라틴어, 희랍어, 독어, 불어, 영어, 이디쉬어(Yiddish, 독일어와 히브리어의 합성어)까지 구사하는 어학의 귀재인 피터스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최적의 인물이었다. 피터스는한국에 온지 3년 만에 구약성경중에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책으로 알려진 시편을 번역했다.

우리가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가 ‘주여 우리를’과 ‘눈을 들어 산을 보니’의 가사는 그가 시편 67편과 121편을 번역한 것이다. 그는 당시 구성된 구약성경번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뛰어난 히브리어 실력을 발휘해서 구약성경 번역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1910년 마침내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번역을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개역위원회의 평생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글성경 개역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피터스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아 첫 번째 부인 엘리자베스는 폐결핵으로 결혼생활 4년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엘리자베스의 묘소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안장, 재혼상대인 에비필드(의료선교사) 역시 불치의 암으로 병사했다(그의 묘소도 양화진 묘역에 안장).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 중 1941년 피터스 목사는 70세가 되어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그는 성경번역자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46년 동안 봉사했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LA 근교 패서디나(Pasadena) 시에 있는 은퇴선교사 주거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다 1958년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국과 미국에서 피터스 목사가 누구인지 아는 사



람조차 별로 없는 잊혀진 존재인 피터스 목사의 존재를 다시금 일깨운 이는 구약학의 권위자인 박준서 교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패서디나 소재 풀러신학대에서 연구 교수로 있었던 박준서 교수는 피터스 목사가 패서디나에서 별세했다면 그의 묘소도 틀림없이 그곳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묘소와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그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묘소관리소의 컴퓨터 조회를 통해 피터스 목사의 묘소가 이 외진 묘역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막상 그 묘역에 가보니 이름을 새겨놓은 석판위로 잔디와 잡초가 뒤덮여 있어 쉽게 묘소를 찾을 수 없어 일일이 손으로 잡초를 헤쳐 가며 찾던 중 마침내 ‘PIETERS’라는 이름이 새겨진 석판을 찾아냈다. 그 순간 박 교수는 묘소를 찾았다는 감격보다는 ‘아 이럴 수가!’라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고 한다.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준 ‘은인’의 묘가 아무런 표지판 하나 없이 이렇게 초라하게 방치돼 있단니! 박 교수는 그에게 감사를 올리는 게 너무 부끄러운 자괴감으로 오랫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준 피터스 목사를 이렇게 소홀히 대접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의 은인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추모하고 그의 공적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기념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피터스 목사의 업적을 기록한 기념비를 그의 묘소에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양화진에 피터스 목사의 공적비를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는, 피터스 목사의 기념강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는, 피터스 성경연구원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표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라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010-9085-7650)

■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조직
△회장 박준서 박사(연세대 구약학 명예교수) △총무 이시야 박사(삼서울대학교) △회계 박연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감사 정영호 박사(공인회계사) △자문위원 김중은 박사(전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노세영 박사(서울신대 총장), 박신배 박사(KC대학교), 김은규 박사(성공회대학교), 조희기 박사(한세대학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문의 | 회 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한기연 제7대 대표회장·상임회장 취임

2018 신년하례 및 사무식 경비 절약해 노숙인 500명 점심 대접

시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은 지난 1월 5일 오전 11시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7대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교계 인사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는 석광근 목사(별인이사)의 사회로 송태섭 목사(공동회장)가 대표기도 하고 서기 김병근 목사가 성경을 봉독했으며 군포제일교회 성가대의 찬양 후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순종하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박요한 목사(공동회장)가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통일을 위해”, 김효중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김동성 목사(공동회장)가 “본회 회원 교단과 단체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한 후 김요셉 목사(초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축하예식은 황인 목사(별인이사)의 사회로 사무총장 최기수 목사가 취임하는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을 소개하고, 이어 박위근 목사(증경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증경대표회장)가 각각 권면을, 오희동 목사(명예회장) 조일래 목사(증경대표회장)가 각각 격려사를, 한기연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성종 대표회장 유종현 목사가 각각 축사를 전했다.

이어 목동능력교회 및시열중앙단이 축기를 한 후 김요셉 초대 대표회장과 박위근 2대 대표회장이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에게 각각 한기연 총대 명의의 축하패를 전달했으며, 한성종 유종현 대표회장과 총무협의회 회장 박민진 목사가 각각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어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각계에서 축하 꽃다발을 전했다.

3부 오전은 순서자들이 신년 축하 케이크를 잘



랐으며, 이계석 목사(공동회장)가 오찬기도하고 기념촬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설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 기적이었더라”고 말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인생이었으나 회개하고 돌아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를 본받아 지금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자리로 나아와 새롭게 거듭나자”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주님이 한국교회를 향한 신 뜻은 빠르게 분별하여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선도하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사랑으로 하나 됨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면서 “부족한 제가 한기연 대표회장으로서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인사했다.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도 “대표회장을 잘 보필하

면서 한기연이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대정부 대사회에 빠르게 전달하고, 연합사업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가는 데 일익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이날 대표회장 및 상임회장 취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감지영 행정관을 통해 축하 난화분을 보내왔으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갑수 종무실장을 통해 난화분을 보내왔다. 또한 김정훈 경찰청장, 이주빈 서울경찰청장, 김주원 해화경찰서장이 각각 축하 난화분을 보내왔으며 각 교단 단체, 개인으로부터 화환과 화분이 답지했다.

한기연은 당초 취임감사예식을 2018 신년하례식을 겸해 성대하게 가지려 했으나 그 경비를 절약해 지난 3일 서울역 해돋이는 마을에서 노숙인 5백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대접하는 사랑의 밥퍼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무식과 신년하례식을 대신했으며, 특별히 예배에 참석한 노숙인 2백여 명에게 별도로 방한용 기모 바지를 선물하는 등 올해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섬김의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다.

사설

교회의 본질 회복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 많은 행사들을 지르며 개혁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는지,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분열과 통합으로 접합된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며 미물과 같이 부족한 인간의 영욕의 덧없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자신들의 못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약용하는 무리들, 거짓과 불의를 최고의 처세술로 삼는 사람들, 이물도우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 이를 수수방관하며 불의한 일에 동침하는 사람들,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심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500주년인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기회였기를 바란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교회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해보고 노력해 보지만 정작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부흥만 하면 된다는 자세로 임하다가 실패하고 절망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교회를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할 때에 우리 교회에도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교단 총회는 사무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단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 다짐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린다.

종교인과세의 해법-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인과세에 대해 위키백과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종교인과세란 종교인에 대한 국제세의 법적 과세이다. 국가가 종교인 과세 법안을 가결하여서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이 종교인에 속한다. 이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종교인 과세다.”

우리나라 헌법 제24제20조 제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란 내면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종교 활동 하나 하나까지 과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승복할 수도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종교인 과세, 그 내용도 종교 탄압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내

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종교인들과 종교를 너무도 가깝게 보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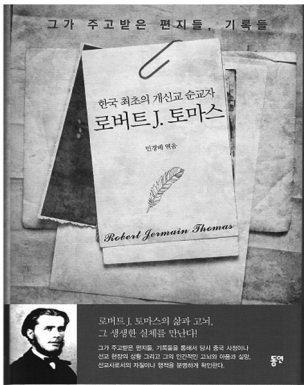
종교인과세의 해법은 미국처럼 성직자가 자신의 생활비에 대하여, 세부 당국에 자진 신고한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면 종교계와 정부가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정부는 성직자 스스로 낸 세금만큼 나중에 혜택과 도움을 주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일 것이다.

종교인들을 세금도 안 내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여론 몰이를 부추기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리하게 제정된 법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권력만 내세우면서, 위험천만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한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종교인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된다.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종교인과세법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며, 시행되는 법안에는 효율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체롭게 대처해야 하겠다.

한국 개신교 초기 순교자 로버드 제르메인 토마스

주교받은 편지, 기록 민경배 교수가 엮어 내



민경배 교수에 의해서 아주 귀중한 자료가 공간 되었다. 동원출판사에서 한국 개신교 초기 순교자 로버드 제르메인 토마스, 그가 주교받은 편지와 기록들을 민경배 교수가 엮어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영국 런던선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한국 대동강에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주교받은 모든 옥필 편지들과 당시의 내외 자료들이 다 망라되어서 간행되었다.

특히, 그가 중국파송 선교사로 중국 상해에 왔다가 한국에까지 와서 순교하게 된 그 배경이 그 자신의 진필 편지로 소상하게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중국 사정이나 당시 선교 현장의 상황, 그리고 토마스 목사의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과 실망 그리고 그의 선교사로서의 자절이나 행적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더구나 상해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있던 동료 선배선교사들과의 관계, 그가 낯선 땅에서 겪었던 일들, 한국조정에서는 그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한 인간으로서의 고충은 무엇이었는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자료의 출간으로 토마스 목사 순교의 의미가 다시 드높아 밝혀지고 있다.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문제들, 그런 상황에서 고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 대한 마음으로로부터의 존경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옥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요한복음 3장 22-36절

요한의 물세례와 그리스도의 성령세례.
요 1:25-34 말씀에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이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안드레와 베드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며, 땅에서는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제자들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갔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와 물로 세례를 주는 자가 병행함으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 출생, 부모, 혈통으로부터 태어난 자, 육으로 낳아진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영적 출생인 거듭남은 위로부터 낳아진 자입니다. 사람이 혈통으로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세례와 거듭남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는 영적출생이 아니라 안 됩니다.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세례는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예수님이 율법 아래, 유대나라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갑니다. 세례요한이 아닌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가 막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에 내가 막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나는 죄하여야 하며 그는 홍하여야 하리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전체를 주셨으니 내가 막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모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물세례는 육신의 사람은 항상 물로 정결히 씻어야 합니다. 육에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적 정결이 중요 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성령 세례는 하늘의 차원입니다. 아불로는 학문이 충만하지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능통하지만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완전히 됩니다. 유대의 관원인 니고데모도 성령을 알지 못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육적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야 새사람으로 변화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 생명(자연인)은 장사지냈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게 합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신앙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흥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6-2791

감사충만 소망충만, 송구영신예배... 조용목 목사 신년메시지

“어떠한 일,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으면 복이 됩니다”

그 어느 해보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갖가지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도하고 행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스러운 삶을 기원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송구영신예배가 지난해 12월 31일 밤 감사충만, 소망충만 가운데 드러졌다.

이른 저녁부터 성도들이 교회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GNTC합창단의 송년찬양연주회 '메시아' 공연 등 성전별 다채로운 송년 찬양행사에 이어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었다.

성도들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치 못하고 힘을 다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받고 새해에 이를 적극 실천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게 되기를 기원하였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시편 73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제목의 신년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조목사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으로 인하여 오히려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신령한 깨달음의 깊이가 같다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실감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괴리가 발견되면 그 이유를 찾아내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히 조처하는 노력을 하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조목사는 악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하게 되고 선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충격을 받고 의심과 번민에 수렁에 빠졌다가, 진리를 깨닫고 신앙이 더욱 분명하고 확고해져서 감격하며 환희에 넘친 목소리로 믿음을 고백한 아삼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이를 자세히 교훈해 주었다.

“인생은 결국이 좋아야 합니다. 성도는 결국이 좋습니다.” “어떠한 일, 어떤 형편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으면 복이 됩니다.” 조목사는 성도들이 이런 확신과 결심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실천하면서 한자게 전진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었다.

성도들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였다.

다. 계속해서 성도들은 나라와 교회의 안정과 발전을 해치는 자들의 도모가 하사가 되고 국가안보가 튼튼해지도록, 해외 선교사들과 선교협력 교회를 위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일에 깊이 참여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비라며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2018년 새해가 되자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며 주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건한 한 해가 되도록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쳤다.



신년축복기도성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드러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나는 항상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로 결단합니다. 예언을 떨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기로 결단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2018년 은혜와진리교회 신년축복기도성회가 1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각 성전에서 동시에 드러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기 위해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다채로운 구원의 은총이 임하며 영육 간에 치료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흘렀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새해설계를 세우고 헌신하는 중에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신년에 더 주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성회는 정현길 목사의 사회로 유훈 장로의 기도, GNTC합창단과 갈릴리성가대, GNTC플룻합주단, 엘리여성성가대의 찬양에 이은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합심기도 순서로 드러졌다.

조목목사는 대살코니가전에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해의 결단'이란 제목의 설교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축복하였다.

조목목사는 설교에서 발전과 성취를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이를 힘써 실천하기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하여 신령한 생활을 위한 결단 목표 일곱 가지를 말씀해 주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감화감동된 성도들은 이를 굳게 마음에 새겨 적극실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였다. 이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개인과 가정의 위를 여러 가지 기도제목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조목목사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주의 기쁘신 뜻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셔서 놀라운 성취와 결실을 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